

국별 리포트

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2. 9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 의견	11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I. 일반개황

면적	66천 km ²	G D P	591억 달러 (2011년)
인구	20.5백만 명 (2011년)	1 인 당 GDP	2,877달러 (2011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ri Lanka Rupee (SLR)
대외정책	독자적 실리노선	환율(달러당)	110.6 (2011년)

- 스리랑카는 인도의 남동쪽,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싱할리족(85%)과 타밀족(15%)으로 구성되어 있음. 인접국인 인도와는 타밀 반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1998년 이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. 한편, 타밀 반군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을 문제로 서양과의 관계는 악화됨.
- 1948년 연국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고 '실론'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.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05년 이후 라자파스세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음. 2009년 26년간 지속되어 오던 내전이 종식되어 정국은 안정되고 있음.
-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 및 보석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내전은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함. 한편, 내전 종결이후 경제성장률이 8%대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8	2009	2010	2011	2012 ^f
경제성장률	5.95	3.54	8.01	8.20	7.50
재정수지 / GDP	-7.02	-9.85	-7.96	-6.91	-6.23
소비자물가상승률	22.39	3.47	6.22	6.72	7.48

자료: IMF.

□ 세계경기 둔화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

- 2009년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2010년 경제성장률은 8.0%를 달성한데 이어 2011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자 및 정부지출 증가 및 제조업, 관광산업 호조로 8.2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.
-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성장세 둔화, 수입물가 상승(루피화 가치 하락) 및 농촌 소득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보다 둔화된 7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내전종식 후 재정지출 축소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

- 스리랑카는 지속되는 내전, 광범위한 탈세,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2010년 인프라 개발 사업 부분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나, 국방부문의 지출이 축소되고 경기회복으로 인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8.0%로 축소됨. 2011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노력이 지속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6.9%로 축소됨.

- 한편,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효율적인 세금 수납제도를 통해 재정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지속

- 2010년에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보다 증가한 6.2%를 기록하였음. 2011년에도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,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7%로 전년보다 상승함.
- 변동환율제도 운용에 따른 루피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, 유가상승 및 임금 인상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보다 상승한 7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구조·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취약한 수출산업 기반으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 지속

-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부족 국가인 스리랑카는 내전 등으로 인한 수출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수출상품은 고무, 차, 섬유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임에 따라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음. 반면, 석유 등은 물론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재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. 특히 석유는 중국,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수요 증대와 중동의 불안정세로 석유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이 스리랑카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.

□ 장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열악한 인프라

- 인프라는 스리랑카의 투자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, 그 중 전력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. 비싼 전력 요금, 잦은 정전 등으로 인해 도시 소재 기업의 약 75%가 자체 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.

- 이는 오랜 내전으로 인프라 개발에 정부 재원이 집중되지 못한 것에 기

인하며, 라자프라세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해당 부문에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있음.

□ 협소한 내수시장 및 낮은 노동생산성

- 스리랑카는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겨냥한 투자가 어려운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노동생산성이 중국,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에 비해 낮고, 임금은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임. 경직된 노동법, 많은 공휴일 및 고급 기술인력의 부재가 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관광지로서 잠재력 풍부

- 스리랑카는 청정해안과 열대성 기후로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고, 내륙지방에는 다양한 자연 생태공원과 고대 유적이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함.
- 2009년 5월 정부와 타밀 반군간의 내전이 종식된 이후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 2010년 스리랑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46.1% 증가한 65만 명을 기록하였으며, 2011년에도 전년 대비 약 30.8% 증가한 86만 명을 기록함.
-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, 스리랑카 정부는 관광상품 개발, 신규 호텔 건립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관광산업의 성장이 추후 스리랑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, 스리랑카 관광개발청(Tourism Development Authority: TDA)은 2016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.

□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ICT 산업의 급속한 성장

- 스리랑카 정부는 기존의 농업중심 국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

ICT산업(유무선통신, 인터넷, 전자정부 등)을 적극 육성하여 빈곤 축소와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.

- 특히,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2011년 2월 최대 이동통신사인 Dialog Axiatra가 1.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함. 이동통신 부문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남아시아 국가 중 전화보급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통신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

-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1998년에는 인도와, 2002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함. 또한,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: SAARC)의 회원국으로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(SAFTA)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.
- 스리랑카는 100%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,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, 자유로운 주식 양도,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.
- 2012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97위를 기록했는데, 이는 필리핀(107위), 인도네시아(115위), 파키스탄(122위), 인도(123위) 등보다 앞선 순위임.
-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 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가 결합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.

3. 대외거래

□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

- 스리랑카는 내전으로 산업기반 확충이 어려워 수출상품은 고무 등 1차

상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차, 섬유유이며, 수입 상품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원자재, 석유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함. 또한,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상품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
-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,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수입 규모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2010년 GDP 대비 2.2% 수준인 11억 달러를 기록함. 2011년에도 경기호조에 따른 석유, 자본재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47억 달러로 GDP 대비 7.5%를 기록함.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08	2009	2010	2011	2012 ^f
경 상 수 지	-3,986	-292	-1,127	-4,675	-4,087
경 상 수 지 / G D P	-9.54	-0.51	-2.20	-7.51	-7.00
상 품 수 지	-4,571	-2,101	-3,536	-9,707	-8,601
수 출	8,111	7,085	8,626	10,559	11,442
수 입	12,682	9,186	12,162	20,266	20,043
외 환 보 유 액	2,469	4,897	6,410	5,734	5,734
총 외 채 잔 액	17,800	20,900	24,800	28,400	30,200
총 외 채 잔 액 / GDP	43.7	49.7	50.1	48.0	46.7
D . S . R .	14.3	16.4	12.7	10.9	13.0

자료: IMF, EIU.

- 2012년 관광업 등 서비스업의 호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와 수입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7.0%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환보유액은 2011년 수입증가로 감소

- 경기 침체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 말 35억 달러에서 2008년 말 25억 달러로 감소하여 채권국들의 우려가 커지자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IMF 차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음. 2009년 7월 IMF는 스리랑카 경제 재건을 위해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.

- 2010년 말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경기회복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해외 송금증가로 전년 보다 30.9%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 그러나, 2011년에는 수입 급증으로 외환보유액은 전년 보다 감소한 57억 달러를 기록함. 이에 따라,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0년 4.7개월에서 2011년 말 2.9개월 수준으로 감소됨.

□ 높은 외채의존도로 외채구조는 점진적 개선 필요

- 스리랑카 총외채잔액은 2011년 말 284억 달러로 추정됨.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은 2010년 말에는 50.1%에서 2011년 말에는 48.0%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.
- 한편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: DSR)은 2009년 16.4%, 2010년 12.7%, 2011년 10.9%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. 다만,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.

III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 동향

□ 라자파크세 대통령 재선 성공에 따른 정치기반 확립

- 2005년 1월 여당연합인 통일인민자유연합(United People's Freedom Alliance: UPFA)의 제1당인 스리랑카자유당(Sri Lanka Freedom Party: SLFP) 출신 마힌다 라자파크세(Mahinda Rajapakse)가 집권한 이후 스리랑카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2009년 5월 타밀반군과의 내전종식 이후 2010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약 58%의 득표율로 경쟁후보였던 사라스 폰세카(Sarath Fonseka) 전 합참의장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음.

* 이 과정에서 폰세카를 지지하는 군부의 쿠데타를 우려한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대선 개표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해 폰세카 후보를 감금함. 또한,

2010년 2월에는 폰세카 후보를 긴급 체포하기도 하여 야당 후보 탄압 및 부정 시비 논란이 두 번째 임기에 부담이 되고 있음.

□ 2010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UPFA의 승리로 정국 안정기반 마련

- UPFA는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총 225석 중 144석을 차지하여 다음 총선인 2016년까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음.

2. 사회 동향

□ 정부와 타밀 반군간 내전 종식됐으나 타밀족에 대한 인종차별로 사회 불안 잠재

- 2008년 1월 타밀 반군(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: LTTE)과의 휴전협정 폐기이후 정부가 타밀 반군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습을 가함으로써 26년 지속된 정부와 타밀 반군간의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었음.
-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피해(민간인 7만명 이상 사망 추정)와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미국,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.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대한 라자파크세의 강경대응, 언론 탄압 및 타밀족에 대한 인종차별은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- 세계 원조기관들이 오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경제개혁과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, 정부가 민간 구호단체의 접근을 일부 통제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 사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국가 비상사태 해제

- 라자파크세 대통령의 재선 성공 및 여당연합의 총선 승리로 정권 기반이 굳건해지자, 타밀 반군 및 반군지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2005년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2011년 8월 해제하였음.
- 그러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, 반군의

테러공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

-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, 지리적,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타밀 반군 및 해양 경계 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갈등을 겪음. 그러나,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,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,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점차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.
-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의 전후 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함. 특히, 스리랑카와 MOU를 체결하여 북동쪽 지방 인프라 개발 및 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수리에 2.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음.
- 한편, 지난 수년간 중국은 5차례에 걸쳐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면서 스리랑카의 최대 원조공여국이 되었음. 2011년 8월 라자파크세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간 무역, 투자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함.

□ 서방국가와 긴장관계 유지

- 2011년 7월 미국은 스리랑카가 내전 말기에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2012년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. 또한,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중단 하는 등 서방 국가들과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S&P는 2010년 9월 조세수입 확대 및 IMF의 정책 지원을 통한 스리랑카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반영하여 기존의 B에서 B+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Fitch도 2011년 7월 경제 회복,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등을 반영하여 스리랑카 장기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B+에서 BB-로 상향 조정함.
- Moody's는 2010년 9월에 스리랑카의 경제 규모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B1으로 책정하였으며, 2011년 7월에 사회 및 경제적 안정 확대를 반영하여 등급 전망을 '긍정적'으로 조정함.
- 2012년 3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 및 안정적인 재정적자로 현재의 6등급을 유지함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6등급 (2012. 3)	6등급 (2011. 3)
S&P	B+ (2010. 9)	B+ (2008. 12)
Moody's	B1 (2010. 9)	-
Fitch	BB- (2011. 7)	B+ (2008. 4)

2. 외채상환태도

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

- 2011년 12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2.3억 달러, 중장기 12.8억 달러로 총 15.1억 달러이며, 연채금액은 없음.
- 스리랑카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채 중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의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 수립: 1977년 11월 14일 (북한과는 1970. 6. 25)

□ 주요 협정: 항공협정('78), 문화협력협정('78), 투자보장협정('80), 무역협정('84), 이중과세방지협약('86), 과학기술협력협정('94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3> 한·스리랑카 교역규모 단위: 백만 달러

대/스리랑카	2009	2010	2011	주요 품목
수 출	170	246	344	자동차, 편직물, 합성고무, 철강관
수 입	74	57	82	의류, 식물성물질, 건전지 및 축전지
합 계	244	303	426	

자료: 한국무역통계.

-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는 2010년 들어 수출이 회복되며 302백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1년의 교역규모는 426백만 달러로 증가함.
- 한국의 대 스리랑카 주요 수출 품목은 편직물, 합성수지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, 최근 자동차, 철강관 등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
- 우리기업의 대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6월 말 153건, 약 1.7억 달러(누계 기준)를 기록함.

V. 종합 의견

□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서비스업 호조, 정부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2011년 8.2%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7.5%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 관광산업 호조,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증가로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 막대한 국방부문 지출 등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.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스리랑카 경제관리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됨.
- 2009년 5월에 25년 이상 이어져 온 타밀반군과의 내전이 종식되었으나,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스리랑카의 사회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. 한편, 2010년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이 승리하면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이 마련됨.
- 스리랑카는 외채의존도가 높아 외채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,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스리랑카의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.

조사역 서은주 (☎02-3779-5705)
E-mail: seounchu@koreaexim.go.kr